



### 남원시, 노인학대 예방·종사자 인권 집합교육

남원시는 20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학대 예방 및 종사자 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존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인권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학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 요령 및 피해 노인 보호 절차 △시설 내 발생 가능한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 현장 실무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임지남 통합돌봄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인복지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모두가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매년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장기 한국대회 성료

남원시(시장 양창모)는 20일, 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회장기 한국대회를 마쳤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회원으로 구성된 17개 팀 85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며 멋진 승부를 펼쳤다.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서양의 양궁 및 다트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생활체육 종목인 한국궁은 어깨와 허리 근육 강화는 물론 집중력 향상과 체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체전 최우수팀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개인전 최우수자에게는 8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됐다.

곽철곤 남원시지회장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으며, 남원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건강·문화가 어우러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타타대우어린이집 등, 옥산면에 이웃사랑 실천

군산타타대우어린이집(원장 정영실)과 디오션이편한어린이집(원장 양민제)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옥산면에 생수 500ml 1,000병과 수박화채 20개를 기탁했다.

군산타타대우어린이집은 매년 어린이집 아나바다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디오션이편한어린이집 또한 원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두 어린이집 원장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주변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 식사 준비 어려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

### 전주 전광라이온스클럽-서신동 새마을부녀회, ‘찬찬찬’ 밀반찬 나눔 협약 체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이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나섰다.

서신동(동장 강덕순)은 20일 전주 전광라이온스클럽(회장 이기태), 서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장은숙)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서신동 찬찬찬!’ 밀반찬 나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신동 찬찬찬!’은 지난 2017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나눔사업이다.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25세대에 정기적으로 밀반찬을 전달하고,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서신동 새마을부녀회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국과 반찬 3종을 정성껏 조리하고 포장한다.

전주 전광라이온스클럽과 서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완성된 밀반찬을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태 전주 전광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 담긴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



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숙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맛있는 밀반찬을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덕순 서신동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전광라이온스클럽과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자원과 적극 연계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동네 사람 1번지’ 서신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까지... 진안고원시장서 소방안전교육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20일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안소방서와 합동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상인과 방문객의 신속한 대피 및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진안고원시장 상인회와 상인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수칙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요령 △상인과 방문객의 대피 방법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초기 화재 진압 요령 △파난저 및 대피 동선 확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장 내 점포와 통로에 적치된 물품이 화재 발생 시 불길을 확대하고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취약 물품의 적치 실태와 정비 방법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포 주변과 공동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소방시설과 비상구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진안소방서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주변 상인과 방문객에 대한 화재 사실 전파,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순서를 설명했다. 또한 초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활용한 대응 방법과 함께, 불길에 커지거나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소화기를 작동해보며 초기 화재 대응 방법을 익혔다. 아울러 시장 내 파난저와 대피 동선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상인 간 역할 분담과 방문객 대피 유도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벤아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 속 공간 탐구

### 전북대 독일학과 학생들, 방학 중 독일 직접 찾아

전북대학교 독일학과가 방학 중 글로벌 PBL(문제중심학습)을 통해 독일을 직접 찾아 문화 텍스트와 도시 공간을 연결해 독일 현대사와 유럽 통합의 의미를 체험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터 벤아민의 ‘베를린의 유년시절’과 베를린 도시 산책(Flanour)을 주제로, 독일학과 학생 10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학생들이 독일어와 문화, 유럽의 다양한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여 원을 기부한 김정옥 김희경유럽정신문화재단 이사장의 지원으로 마련됐다. 기존 어학연수 중심의 해외 체험을 넘어 강의실에서 배운 인문학적 질문을 현장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토론하는 글로벌 PBL 교육의 장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베를린 도심 슈타트비역에서 출발해 젠다르텐 마르크트, 훔볼트대학교, 운터 덴 린덴, 브란덴부르크문, 티어가르텐, 포츠담광장 등을 있는 약 8시간의 도시 산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터 벤아민이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에서 포착한 대도시의 풍경과 사유 이미지를 실제 공간에서 되짚으며, 베를린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의 결을 읽어냈다.

특히 학생들은 훔볼트대학교 본관 계단에 새겨진 포이어 바흐 테제의 문구를 원어로 읽고, 대학 본부 뒤편의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서 타자와 공존의 의미를 토론했다.

또 영화 ‘사라의 추구와 발견’의 촬영지로 알려진 젠다르텐마르크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 경관의 변화를 실었다. 박물관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며 베를린이 축적해 온 예술·문화 자산의 규모와 의미도 체감했다.

브란덴부르크문과 티어가르텐, 포츠담광장 일대에서는 독일 통일과 냉전, 분단의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품은 기억을 탐색했다.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결의 홀로코스트 추모 공간, 베를린 장벽의 흔적,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억을 보존하는 슈틀퍼슈타인(Sidperstein) 등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사 청산과 집단 기억,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함께 성찰했다.

/김재훈 기자

## 임실군, 삼계면 친환경 벼 ‘해담쌀’ 첫 수확

임실군 삼계면 학정리 엄대기 농가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벼를 지난 18일에 수확하며 뜻깊은 첫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엄대기 농가는 삼계 박사골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친환경 재배기술을 활용해 32ha 규모의 벼를 19명의 회원들과 함께 삼계면 학정리 일대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번에 수확한 품종은 조생종 ‘해담쌀’으로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했다. ‘해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최고품질 조생종 벼로, 밥맛이 좋고 단백질 함량

이 낮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품종이다. 특히 추석 전 햅쌀로 조기 출하가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복합, 가뭄 등 열악한 기상 여건을 이겨내고 값진 쌀을 수확한 농업인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덕진소방서, 구급대원 등에 ‘하트세이버’ 수여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20일, 심정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9명과 일반 시민 1명 등 총 10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덕진소방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특히 수상자 중 구급대원 3명은 생애 첫 하트세이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소방관으로서 생명 존중의 소명 의식을 되새기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하트세이버 수상자로 선정된 조춘119안전센터 구급대원 3명은 지난 2월 13일 오후 완주군 삼례읍 축구장 현장에서 출동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꺼져가던 생명을 되살렸다. 이어 금안119안전센터 구급대원 6명은 지난 3월 11일 “가게에서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초 목격자인 시민 및 타 관서 펌블런스 대원들과 긴밀하고 완벽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며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당시 최초 목격자 김종훈(56) 씨는 쓰러진 직원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상황실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소방서 펌블런스 대원들과 금안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 이송이 이어져 환자는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 직접 참석한 김종훈 씨에게 황수연 대응예방과장이 인증서와 배지를 직접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 결혼이민여성 카페디저트마스터 과정 수료식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0일,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결혼이민여성 카페디저트 마스터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총 10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해 카페음료와 결들일 수 있는 디저트 제조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전문적인 직업 역량을 키웠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한 취미교육을 넘어 실제 카페 취·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9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생들의 소감과 앞으로의 꿈을 나누며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무주=손홍기 기자

### 남원 금동, 어르신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금동8동경로당을 시작으로 ‘어르신 활력UP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무더위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관내 7개 경로당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각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하는 원예활동으로, 어르신들은 다양한 색 모래를 활용해 화분을 꾸미고 호야를 수경 식재하며 식물을 직접 가꾸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대산면,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



남원시 대산면(면장 권혜정)은 20일,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으로 푸드뱅크를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관내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추진했다.

권혜정 대산면장은 “지역의 각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산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